

名前：

지금까지의 대중매체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된다고 해도 신문의 독자의견과 같이 간단한 문장으로 적어서 신문에 실는 번거로운 방법으로 그 내용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왔다. 그러나 인터넷을 신문이나 TV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뉴스나 잡지 등의 종이 매체에 적혀있던 것들을 다양한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편집하거나 상대방에게 손쉽게 보여줄 수 있다. 또,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었던 종이신문의 수는 저리의 문제나 자원의 문제라. 줄어들고 있지만 전자신문이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또, 신문의 기사나 잡지에

네티즌이 여러가지 코멘트를 해줄 때 문에 몰랐던 부분이나 놓쳤던 부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물론, 화면을 보는 것은 눈에 좋지 않고 유해한 정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의 신문이나 잡지가 기존의 종이 미디어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이상, 종이 미디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한정되어 있는 신문이나 잡지보다 인터넷 상에서 한마디라도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종이신문이나 잡지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미디어에서 벗어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인터넷의 뉴스로 교육자료로 사용하거나 활용한다면 지금까지보다 더 얻을 수

1800字

